

임상간호사의 연구관련 활동 실태와 관련요인

양 영 희¹⁾ · 구 미 옥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전문직으로서의 간호는 과학적 지식체에 기초하여 임상적 판단과 업무수행을 함으로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그 결과 사회가 요구하는 간호의 전문적 책임을 다하고, 간호의 자율성을 확립하게 된다.

간호연구는 간호실무의 기반이 되는 과학적 지식체를 생성하고, 기존의 지식을 검증하고, 다듬고, 확대시킨다(Lee, Yang, Gu & Eun, 2000). 임상간호연구는 임상에서 간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서 간호실무에서 간호문제를 규명하고, 더 나은 간호의사결정을 내리고, 환자의 회복을 증진시키고, 간호사의 직업적 만족감을 증가시키고, 간호실무를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이다(Kim, Kim, Kim, Byun & Jung, 2002).

Park(1997)은 임상간호사는 간호실무에서 경험하는 간호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는 연구에 가장 적극적인 인력으로서 간호사들이 앞장서 연구를 통해 과감히 간호방법 및 절차를 개선해나가는 시도를 해야 진정한 임상발전 및 환자간호의 질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임상간호사의 연구 활동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임상간호사의 연구실태를 보면 700 병상 이상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과 임상간호 연구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파악했을 때 1995년-1999년까지 연구논문은 총 477편이었고, 평균 매년 103.5건의 임상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

며 95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어, 임상간호사에 의한 연구가 간호부 주관 학술대회 개최, 임상간호학술지의 수적 증가, 임상간호연구 인력증가의 기초위에 양적, 질적인 발전이 있음을 볼 수 있다(Kim, 1999). 하지만 아직까지 임상간호연구가 간호실무의 발전을 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임상간호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임상간호사의 연구 활동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선행연구에서는 관련요인으로 연구태도(Hicks, 1995; Kang & Kim, 2005; Poster, Betz & Randall, 1992; Rizzuto, Bostrom, Suter & Chenitz, 1994; Tisdale, Williams- Barnard & Moore, 1997), 연구수행 장애요인(Hicks, 1995; Kang & Kim, 2005; Kim et al., 2002; Park, 1997), 연구수행 촉진요인(Kim et al., 2002; Park, 1997), 연구수행 지지(Rizzuto et al., 1994), 연구 지식(Kim et al., 2002)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중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연구활동 관련 연구는 3편에 불과하며 연구수행 지지에 대한 연구는 전혀 시도되지 않아서 이 분야의 연구가 더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최근 대학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는 간호부 주관 하에 병동별 연구를 수행하고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어 연구 수행 분위기가 크게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임상간호사들의 연구수행능력이 부족하고, 병원에서 연구수행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함으로서 간호사들이 연구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임상간호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에

주요어 : 임상간호사, 연구 활동

1)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hanul96@dankook.ac.kr)

2)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투고일: 2005년 10월 27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14일

서 임상간호사의 연구관련 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임상연구 수행시 장애 요인 및 지지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관련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활동에 대한 관련요인으로 간호사의 연구태도, 연구수행 장애, 연구수행 지지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임상간호사의 연구활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임상간호사의 연구관련 활동 실태를 파악한다.
- 임상간호사의 연구태도, 연구수행 장애, 연구수행 지지요구를 파악한다.
- 임상간호사의 연구태도, 연구수행 장애, 연구수행 지지요구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임상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연구관련활동에 따른 연구태도, 연구수행 장애, 연구수행 지지요구를 파악한다.

용어의 정의

• 연구관련 활동

간호연구 수강 경험, 연구(단독 혹은 공동 연구) 수행 경험, 연구활용경험, 학회가입, 학술대회참석 및 학술지 구독 빈도를 말한다.

• 연구 태도

간호연구에 대한 가치, 수행과정상 문제, 연구수행을 위한 기술과 자신감의 정도로서 Hicks(1995)가 개발한 연구태도 도구로 측정된 점수이다.

• 연구수행 장애

간호사가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지각하는 장애정도로서 Hicks(1995)가 개발한 연구수행장애 도구로 측정된 점수이다.

• 연구수행 지지 요구

간호사가 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각하는 정도로서 연구자들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이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연구관련 활동과 연구태도, 연구수행 장애 및 수행 지지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충남과 경남지역의 2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경력 12개월 이상의 임상 간호사중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병원은 모두 750병상 이상의 규모로서 매년 1회씩 연구논문발표를 하고 있었다. 총 응답자수는 238명이었다.

연구 도구

• 일반적 특성

나이, 임상 경력, 학력, 결혼상태, 지위, 근무병동을 조사하였다.

• 연구관련 활동 특성

간호연구 수강 경험, 연구(단독 혹은 공동 연구) 수행 경험, 연구활용경험, 학회가입, 학술지 구독빈도 및 학술대회 참석을 조사하였다.

• 연구 태도

Hicks(1995)가 개발한 13문항(긍정문항 7문항, 부정문항 6문항)의 5점 척도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점수의 의미는 “매우 동의한다” 5점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이고, 부정문항은 역으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alpha = .71 이었다.

• 연구 수행 장애

Hicks(1995)가 개발한 12문항의 5점 척도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점수의 의미는 “매우 동의한다” 5점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alpha = .72 이었다.

• 연구 수행 지지요구

연구자가 개발한 9문항의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자가 문헌(Lee et al., 2000)을 참조하여 연구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영역을 규명하여 문항을 개발하고, 이들 영역에 대해 간호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를 “매우 도움이 필요하다” 5점에서 “전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1점으로 점수 배정을 하였다.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자들이 해당 병원 간호부에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각 병동의 수간호사의 협조를 얻어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자료수집은 2004년 1월 - 6월에 이루어졌다.

자료분석방법

-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변수는 서술적 통계로 분석하였다.
- 연구태도, 연구수행 장애, 연구수행 지지요구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구하였다.
-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연구관련활동에 따른 연구태도, 연구수행 장애, 연구수행 지지요구는 t 검정 또는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4- 47세 사이이었고, 20-29세가 49.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30-39세로 42%이었다. 임상 경력은 평균 90.4(± 64.80)개월이었다. 학력은 4년제 졸업이 4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년제 졸업이 35.3%이었으며 대학원 재학 이상은 23.9%이었다.

결혼상태는 57.5%가 미혼이었으며, 지위는 일반간호사가 81.9%로 가장 많았고 수간호사나 과장(또는 팀장)이 9.7%, 선임간호사가 8.4%이었다. 근무병동은 내과계가 42.5%로 가장 많았고 외과계 34.8%, 중환자실 17.7%, 기타 부서(외래, 간호부 등) 5.2%이었다.

연구관련 활동

대상자의 연구관련 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았다. 대상자의 85.7%가 간호연구 강의를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과반수 이상(68.5%)은 대학에서 학점으로 이수하였고 나머지는 졸업 후 직무교육(29%)이나 간호협회 보수교육(18.1%)을 통해 교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수행 경험은 대상자의 45.4%에서 있었고, 공동연구 수행 경험자(35.7%)가 단독 연구 수행자(16.4%)보다 2배정도 많았다.

연구활용 경험은 대상자의 24.6%에서 있었다.

학회가입자는 대상자의 29.4%로 적었다. 이들 대상자가 가

입한 학회는 총 29개이었고 이중 간호학 및 간호분야 학회는 16개(55.1%)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의학관련 학회는 13개이었다.

학술지 구독자는 대상자의 75.6%(179명)이었다. 구독 횟수는 1-2회/1년 45.6%로 가장 많았고, 1회/2-3달 13.5%, 1회/1달 9.7%, 1회/1주 6.8%로서 최소한 1회/2-3달 학술지를 보는 대상자는 30.0%이었다. 학술지 구독자중 121명이 구독 학술지명에 대한 응답을 하였는데 분석 결과 구독하는 학술지 종류는 모두 40개이었고, 이중 23개가 간호학 및 간호분야회 학술지였다. 가장 많이 구독하는 학술지는 한국간호과학회지로서 78.5%이었고, 다음이 성인간호학회지 14.0%, 정신간호학회지 9.9% 순서이었다. 1인 구독학술지는 평균 1.5(±.78)개이었다.

국내 학술대회 참석경험은 대상자의 45%에서 있었으며 이중 2.5%는 논문발표 경험이 있었고, 7.2%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었다.

<Table 1 > Research-related activities (N=238)

activities	N(%)
courses or lecture about "Nursing Research"	204(85.7)
research conduction	108(45.4)
- a collaborating research	85(35.7)
- their own research	39(16.4)
research utilization	57(24.6)
memberships for academic societies	65(29.4)
journal reading at least once per 2-3 months	71(30.0)
participation in academic conferences	107(45.0)

연구태도, 연구수행 장애, 및 연구 수행 지지요구의 정도

연구태도는 5점 만점에서 평균 3.08(±.35)점이었다. 긍정적인 연구태도를 보인 문항은 '대부분의 병원과 의료센터는 타당한 간호연구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다' 3.56(±.79)점,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간호사의 필수적인 역할이다' 3.54(±.84)점, '모든 간호사들은 연구방법을 필수 과목으로 수강해야 한다' 3.52(±.92)점 이었다.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인 문항은 '대부분의 간호사는 연구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2.30(±.72)점, '대부분의 간호사는 연구 수행에 능숙하다' 2.48(±.82)점 이었다<Table 2>.

연구수행 장애 정도는 5점 만점에서 평균 3.37(±.40)점이었다. 가장 장애지각이 높은 문항은 '연구수행이 어렵다' 4.09(±.72)점, '시간의 부족' 3.98(±.67)점, '지원 부족' 3.95(±.70)점 이었다. 반면 장애가 적은 문항은 '전문직 발전에서 연구가 필수적이지 않다' 2.13(±.83)점, '연구가 간호사 역할이 아닌 것 같다' 2.31(±.80)점이었다<Table 3>.

<Table 2> Attitudes to research

(N=238)

Items	M ± SD
Most hospitals and health centers would adopt the results of sound nursing research.	3.56 ± .79
One essential role of the nurse is to carry out research.	3.54 ± .84
All nurses should do a compulsory course on research methodology.	3.52 ± .92
* Most nurses don't have any motivation to carry out any research of their own.	3.44 ± .82
The health care professionals have a lot of confidence in nursing research.	3.26 ± .73
* Research findings have very little impact on nursing practice.	3.11 ± 1.01
Most clinical nurses are interested in implementing research findings	3.11 ± .89
* Most nurses just pay lip-service to the value of research-they aren't really convinced of its worth.	2.96 ± .92
* Even if nurses did carry out research, the doctors wouldn't use the findings.	2.91 ± .88
* The attitudes of Medical staff don't permit the implementation of any nursing research findings.	2.88 ± .82
Lack of time for research is no excuse for the really motivated nurse.	2.73 ± 1.02
Most nurses are competent to undertake research.	2.48 ± .82
* Most nurses lack the confidence to carry out research.	2.30 ± .72
Total	3.08 ± .35

* : reverse scored item

연구수행 지지요구는 평균 4.14(±.49)점이었다. 가장 지지요구가 높은 문항은 '자료 분석' 4.37(±.64)점, '연구비 보조' 4.31(±.69)점 '연구 도구 선정' 4.20(±.68)점 이었다. 반면 지지요구가 가장 낮은 문항은 '연구결과물 출판' 3.87(±.75)점이었

<Table 3> Barriers to research

(N=238)

Items	M ± SD
Hard to conduct research	4.09 ± .72
Lack of time	3.98 ± .67
Lack of support from the workplace	3.95 ± .70
Lack of motivation or interest	3.87 ± .77
Lack of knowledge	3.81 ± .71
Lack of confidence	3.69 ± .77
Lack of perceived value of research to practice	3.67 ± .86
Lack of external compensation or incentives	3.50 ± .91
Lack of psychological satisfaction	2.76 ± .99
Research findings unlikely to influence practice	2.64 ± .93
Research not part of the nurse's role	2.31 ± .80
Research not essential to development of the profession	2.13 ± .83
Total mean	3.37 ± .40

<Table 4> Support needs for undertaking research

(N=238)

Items	M ± SD
analyzing data	4.37 ± .64
taking a fund	4.31 ± .69
selecting research tools	4.20 ± .68
planning research design	4.14 ± .67
organizing literature review	4.11 ± .70
collecting data(data collection)	4.10 ± .73
clarifying a research problem	4.09 ± .75
writing a report	4.07 ± .69
publishing a paper	3.87 ± .75
Total	4.14 ± .49

다<Table 4>.

연구태도, 연구수행 장애, 및 연구수행 지지요구와의 관계

연구태도는 연구수행 장애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r=-.36, p=.000), 연구수행 장애는 연구수행 지지요구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r=.23, p=.000). 즉 연구에 대한 태도가 좋을수록 연구수행 장애 정도는 유의하게 낮았고, 연구수행 장애 지각이 높을수록 연구수행 지지요구도 유의하게 높았다. 연구태도와 연구수행 지지요구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Table 5>.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attitudes toward research, barriers to and support needs for undertaking research.

	barriers r(p)	support needs r(p)
attitudes	-.36(.000)	-.01(.925)
barriers		.23(.00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태도, 연구수행 장애, 연구수행 지지요구

연구 수행 장애는 연령과 지위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즉 연구수행 장애는 30-39세에서 3.43(±.41)점으로 가장 높았고 40-49세가 3.10(±.45)점으로 가장 낮았으며(F=5.412, p=.005), 지위에서는 선임간호사가 3.51(±.44)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간호사(혹은 팀장) 3.20(±.40)점으로 가장 낮았다(F=3.260, p=.040). 한편 연구태도나 연구수행 지지요구와 유의한 관계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없었다<Table 6>.

<Table 6> Attitudes toward research, barriers to and support needs for undertaking researc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esearch-related activities

	attitudes			barriers			needs		
	N	M (SD)	F or t (p)	N	M (SD)	F or t (p)	N	M (SD)	F or t (p)
age(year)			1.289			5.412			.068
20-29 (A)	112	3.06(.35)	(0.278)	112	3.37(.36)	(0.005)	115	4.15(.46)	(0.935)
30-39 (B)	99	3.07(.36)		95	3.43(.41)		98	4.13(.52)	
40-49 (C)	20	3.19(.32)		20	3.10(.45)		20	4.16(.54)	
position			1.061						.580
staff (A)	188	3.07(.35)	(0.348)	186	3.38(.38)	3.260	192	4.13(.50)	(0.561)
charge (B)	20	3.02(.40)		18	3.51(.44)		18	4.22(.37)	
HN/director(C)	23	3.17(.31)		23	3.20(.40)		23	4.21(.55)	
research conduction									
yes	107	3.02(.34)	-2.130	103	3.43(.47)	2.194	107	4.11(.53)	-0.872
no	124	3.12(.35)	(0.034)	124	3.32(.32)	(0.029)	126	4.17(.46)	(0.384)
research utilization									
yes	56	3.09(.31)	.474	55	3.34(.51)	-0.431	56	4.28(.53)	2.465
no	169	3.07(.37)	(0.636)	166	3.37(.36)	(0.667)	171	4.09(.48)	(0.014)
journal reading									
yes	70	3.17(.34)	2.640	65	3.30(.47)	-1.702	68	4.16(.60)	.284
no	160	3.04(.35)	(0.009)	161	3.40(.37)	(0.090)	164	4.14(.44)	(0.777)

* post-hoc test-results

연구관련 활동에 따른 연구태도, 연구수행 장애, 연구수행 지지요구

연구 관련 활동 중 연구 태도, 연구수행 장애, 연구수행 지지요구에 유의한 결과를 얻은 활동만을 <Table 6>에 제시하였다.

연구태도는 연구수행 경험과 학술지 구독 빈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즉 연구수행 경험이 있는 대상자(3.02점)는 없는 대상자(3.12점)보다 연구 태도가 유의하게 낮았고($t=-2.130$, $p=.034$), 2-3달에 일회 이상 학술지를 구독하는 대상자들(3.17점)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3.04점)보다 연구 태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2.640$, $p=.009$).

연구수행 장애는 연구수행 경험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 연구수행 경험이 있는 대상자(3.43점)는 없는 대상자(3.32 점)보다 연구수행 장애가 유의하게 높았다($t=2.194$, $p=.029$).

연구수행 지지요구는 연구활용 경험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 연구활용 경험자(4.28점)는 연구활용 경험이 없는 대상자(4.09 점)보다 연구수행 지지요구가 유의하게 높았다($t=2.465$, $p=.014$).

그밖에 간호연구 수강 경험, 학회 가입 여부나 학술대회 참석 여부는 연구태도, 연구수행 장애, 연구수행 지지요구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

는데 학사 출신 이상의 대상자가 64.7%로 전국의 25개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Oh, Oh와 Lee (2004)의 연구에서 학사 이상의 간호사가 62.9%라는 보고와 유사하였다.

대학병원 간호사의 연구관련 활동 실태를 보면 간호연구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의 대상자가 교육을 받았으며 이중 과반 수가 넘는 대상자가 대학에서 연구과목을 학점으로 이수한 상태이었다. 대학병원급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대학에서 간호연구 과목을 이수한 비율은 2000년 이후에 발표된 선행 연구(Kim et al., 2002; Lee & Kim, 2000; Oh et al., 2004)에서 모두 60%이상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2000년 이전에 발표된 Park(1997)의 결과에 의하면 22.4%로 낮게 나타나 대학에서 간호연구 과목 개설 비율이 점차 높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Adamsen, Larsen, Bjerregaard & Madsen, 2003)에 의하면 연구 방법의 교육이 간호사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연구수행 경험은 본 연구에서는 단독 연구(16.4%) 또는 공동 연구(35.7%)를 수행한 연구수행 경험자가 45.4% 이었는데 이는 임상간호사 204명을 대상으로 한 Park(1997)의 연구에서 공동이나 단독 연구수행 경험자 27.5% 보다 높았다. 그러나 대학병원 간호사 18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 등(2002)의 연구에서 단독 연구는 12.2%(16명), 공동 연구는 77.8%(103명)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 대상자들은 공동 연구수행 경험이 적었다. 전체적으로 2000년 이후 임상에서 간호사들의 연구수행 경험이 증가하고 있었고 이는 대학에서 간호연구 과목 이

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된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영국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Davis 등(2002)의 연구에서 단독 연구 수행이 20%라고 보고하였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임상 간호사 1217명을 대상으로 한 Rizzuto 등(1994)의 결과에서는 공동 연구수행이 34.7%, 단독 연구수행이 28% 라고 하여 본 연구 대상자보다 단독 연구수행 경험이 많았다.

논문 발표 경험은 2.5%로 매우 적었는데 이는 전국 25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한 Oh 등(2004)의 연구에서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13.8%에 비해 저조하였다. 한편 국외의 경우를 보면 Tisdale 등(1997)의 연구에서는 논문 게재경험이 있는 경우가 간호사의 6%이고, 같은 동양권인 대만에서 Tsai(2000)의 보고에 의하면 학회에서 논문 발표한 경우가 34%, 국내 잡지에 논문을 게재한 대상자가 23.8% 이어서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논문의 학술지 게재와 학회 발표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활용 경험은 24.6%의 대상자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는 Kang과 Kim(2005)의 대학병원 간호사의 연구활용율 8.3%보다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만에서는 간호사의 50%에서 연구활용 경험이 있고(Tsai, 2000), 북 아일랜드에서는 간호사의 26.8%가 임상에서 자주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Parahoo, 1998), 캐나다에서는 일반간호사의 53%가 연구결과 활용 경험이 있다고 해서(Butler, 1995)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간호사의 연구활용율이 매우 낮아 연구결과의 임상실무활용을 촉진시키는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간호사의 연구활용 정도가 낮은 이유로 실무 적용 의의가 분명하지 않고(Oh et al., 2004; Park, 1997) 시간이 부족하며(Oh et al., 2004; Parahoo, 1998; Tsai, 2000), 연구 보고서를 쉽게 접할 수 없고(Parahoo, 1998; Park, 1997), 통계 분석 결과에 대한 이해부족(Park, 1997)을 들고 있으므로 이들 장애요인을 줄이는 중재가 강력히 시도될 필요가 있겠다.

연구태도는 평균 3.08점(1-5점)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이어서 간호사의 연구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Hicks(1995)의 연구에서는 영국의 간호사 23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총점 42점으로 문항 평균이 3.09점이어서 본 연구 결과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한편 본 연구와 다른 연구태도 도구를 사용하였던 Kang과 Kim(2005)의 연구에서는 3.55점(1~5점)으로 본 연구 결과보다 더 긍정적 태도를 보였는데 이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본 연구도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연구참여에 관한 문항이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태도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던 문항은 '대부분의 병원과 의료센터는 타당한 간

호연구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다',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간호사의 필수적 역할이다', '모든 간호사들은 연구방법을 필수과목으로 수강해야 한다' 등으로 주로 연구의 가치에 관한 것들이었다. 점수가 가장 낮았던 문항은 '대부분의 간호사는 연구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간호사는 연구수행에 능숙하다'로 간호사의 연구수행 능력에 대한 문항이었다. Rizzuto 등(1994)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연구 참여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으므로 간호사의 연구태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본 연구결과는 연구태도를 긍정적으로 증가시키려면 간호사의 연구수행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수행 장애는 평균 3.37점(1-5점)으로 전반적으로 약간의 장애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등(2002)의 연구에서는 평균 2.83점(1-5점)으로 나와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연구수행에 대한 장애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들이 낮은 장애를 지각한 문항들은 "연구가 실무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 "전문직 발전에 필수적이지 않다", "간호사의 역할이 아닌 것 같다"인데 이러한 결과는 Kim 등(2002)의 연구에서 "연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가 2.63점으로 장애가 낮았던 결과, Hicks(1995)의 연구에서 이들 장애요인이 낮은 우선순위를 보인 결과와 일치하며 대학병원 간호사들은 이미 연구를 전문직 발전에 필수적이며, 연구수행을 간호사의 역할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높은 장애를 지각한 문항들을 보면 시간부족, 지원부족을 지식부족, 자신감 부족보다 더 큰 장애요인으로 지각하였다. Kang과 Kim(2005)의 연구에서 시간 부족을 지식부족보다 더 크게 지각하고, Rizzuto 등(1994)의 연구에서 병원의 연구에 대한 지원중 시간 부족을 가장 크게 지각하였고, 다음이 연구비 지원 부족이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Hicks(1995)의 연구에서 지식부족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고, 다음으로 시간부족, 동기나 관심부족, 자신감 부족이 높은 장애 우선순위를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간호사의 임상연구 수행의 장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병원 행정부 또는 간호부에서 간호사들이 연구수행을 위한 시간을 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연구활동에 사용한 시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연구활동을 하는 간호사들에 대해 근무시간을 조정해주고 밤근무를 줄여주는 것(Rutledge, Ropka, Greene, Nail, & Mooney, 1998) 등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 아울러 연구수행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 연구비 지원 등 각종 행정적 지원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수행 지지요구는 평균 4.14점(1-5점)으로 연구 결과물 출판외의 모든 문항에서 4점 이상의 높은 지지요구를 나타내었다. 가장 높은 지지요구를 보였던 분야는 통계분석이어서

간호사들이 연구수행시 통계분석에 가장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Kim 등(2002)의 연구에서 연구통계 지식, 연구설계와 결과 해석에서 지식의 부족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하고, Kang과 Kim(2005)의 연구에서 통계지식 부족이 3.75점(1-5점)으로 장애요인의 4위였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지지요구가 높았던 분야는 연구비 보조, 연구도구 선정, 연구설계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임상간호사들의 적절한 연구수행을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장애요인으로 지원부족이 높았던 것과 일치한다. 이러한 간호사들의 지지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간호부에서는 간호사들이 연구진행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연구상담을 해줄 수 있는 연구 간호사를 배치하거나 간호대학의 교수에게 연구상담자 역할을 의뢰하거나 간호대학과 연계한 임상연구활동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간호사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실무교육이 워크샵 형태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Oh et al., 2004).

간호사의 연구태도가 좋을수록 연구수행 장애를 낮게 지적하고 있었고, 연구수행 장애가 높을수록 연구수행 지지요구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이 없어 비교할 수 없으나 연구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진 간호사는 연구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한 연구수행 장애가 적고, 또한 시간 부족이나 지원 부족 등의 장애에 부딪혔을 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긍정적인 연구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연구수행 장애를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 한편 연구수행 장애가 높은 간호사는 연구수행에 더 많은 지지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기대와는 달리 연구수행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없는 간호사보다 연구태도가 낮고 연구수행 장애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수행 과정 동안 간호사들이 받은 부정적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무현장에서 간호사들은 인력이나 행정, 재정의 지원이 부족한 가운데 연구를 근무와 병행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나 부담을 가졌을 것이고 연구수행 상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인데 그러한 경험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간호부서에서는 임상간호사에게 연구수행을 의무화만 하지 말고, 간호사들이 연구수행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므로서 긍정적인 연구태도를 높이고, 연구수행 장애를 줄일 수 있도록 연구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대학병원의 임상간호사는 과반수 이상의 대상자들이 간호연구 방법을 교육받았으나 학회 가입이나, 논문 발표 경험은 적은 편이었고 특히 연구활용 면에서는 외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았다. 연구태도는 중립이었고, 연구수행에 약간의 장애를 느끼며, 연구수행에 높은 지지요구를 나타

내었다. 그러므로 임상간호사의 연구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연구수행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이 더 부정적인 연구태도와 더 높은 연구수행 장애를 보이고 있어서 연구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결론 및 제언

결론

임상간호사의 연구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태도, 연구수행 장애, 및 연구수행 지지요구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의 2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경력 12개월 이상의 임상간호사 238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연구태도와 연구수행 장애는 Hicks(1995)의 도구, 연구수행 지지요구는 연구자들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들의 연령은 20-29세가 49.6%로 가장 많았고, 임상 경력은 평균 90.4(±64.80)개월이었다. 4년제 졸업생이 40.8%로 가장 많았고 57.5%의 대상자가 미혼이었으며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81.9%로 대다수이었다.
- 연구관련 활동 실태를 보면 대상자의 85.7%는 연구과목 수강 경험을 하였고, 2-3달에 한번 정도로 학술지 구독을 하는 경우는 30%이었다. 학회 가입자는 대상자의 29.4% 정도이었으나 학술대회 참석 경험은 45%가 갖고 있었다. 또한 2.5%의 대상자는 논문 발표 경험도 갖고 있었다. 단독이나 공동 연구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는 대상자는 45.4%이었고, 연구활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4.6%이었다.
- 연구에 대한 태도는 평균 3.08(±.35)점, 연구수행 장애는 평균 3.37(±.40)점, 연구수행 지지요구는 평균 4.14(±.49)점이었다.
- 연구수행 장애는 연구태도와 연구수행 지지요구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연구태도가 좋을수록 연구수행 장애가 유의하게 낮았으며($r=-.36, p=.000$), 연구수행 장애가 높을수록 연구수행 지지요구가 유의하게 높았다($r=.23, p=.000$).
- 연구수행 장애 점수는 대상자의 연령이 30-39세인 군에서 가장 높았고 40-49세 군에서 가장 낮았으며($F=5.412, p=.005$), 선임간호사에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간호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F=3.260, p=.040$). 연구수행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연구수행 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연구태도가 유의하게 낮았고($t=-2.130, p=.034$) 연구수행 장애는 유의하게 높았다($t=2.194, p=.029$). 연구활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연구활용 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연구수행

지지요구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t=2.465, p=.014$).

제언

간호연구의 측면에서

- 대상자의 수를 늘리고, 대표성 있는 표본을 선정하여 반복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연구수행에 따른 스트레스, 문제점, 지지요구 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임상연구수행시 간호사가 긍정적 경험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간호사의 연구태도를 높이는 중재전략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damsen, L., Larsen, K., Bjerregaard, L., & Madsen, J. K. (2003). Moving forward in a role as a researcher: the effect of a research method course on nurses' research activity. *J Clin Nurs, 12*(3), 442-450.
- Butler, L. (1995). Valuing research in clinical practice : A basis for developing a strategic plan for nursing research. *Can J Nurs Res, 27*(4), 33-49.
- Davis, J., Heyman, B., Bryar, R., Graffy, J., Gunnell, C., Lamb, B., & Morris, L. (2002). The research potential of practice nurse. *Health Soc Care Community, 10*(5), 370-81.
- Hicks, C. (1995). The shortfall in published research: a study of nurses' research and publication activities. *J Adv Nurs, 21*, 594-604.
- Kang, H. S., & Kim, M. J. (2005). Barriers and attitudes to research among nurses in one hospital in Korea. *J Korean Acad Nurs, 35*(4), 656-63.
- Kim, M. O. (1999). Current status of Clinical Research in Korea. *The Korean Nurse, 202*, 70-76.
- Kim, M. Y., Kim, S. Y., Kim, Y. Y., Byun, J. H., & Jung, Y. Y. (2002). A study of relating factors to the research activity in an university hospital. *Clin Nurs Res, 8*(1), 117-128.
- Lee, E. H., & Kim H. S. (2000). Nurses' perception of barriers to research utilization. *J Korean Acad Nurs, 30*(5), 1347-56.
- Lee, H. K., Yang, Y. H., Gu, M. O., & Eun, Y. (2000). *Introduction to Nursing Research*. Seoul : Hyunmoon sa.
- Oh, E. G., Oh, H. J., & Lee Y. J. (2004). Nurses' research activities and barriers of research utilization. *J Korean Acad Nurs, 34*(5), 838-48.
- Parahoo, K. (1998). Research utilization and research related activities of nurses in Northern Ireland. *Int J Nurs Stud, 35*, 283-291.
- Park, J. W. (1997). Barriers and facilitators to the research activity in nursing practice. *Clin Nurs Res, 3*(1), 235-252.
- Poster, E. C., Betz, C. L., & Randell, B. (1992). Psychiatric Nurses' Attitudes Toward and Involvement in Nursing Research. *J Psychosoc Nurs, 30*(10), 26-29.
- Rizzuto, C., Bostrom, J., Suter, W. N., & Chenitz, W. C. (1994). Predictors of Nurses' Involvement in Research Activities. *West J Nurs Res, 16*(2), 193-204.
- Rutledge, D. N., Ropka, M., Greene, P. E., Nail, L., & Mooney, K. H. (1998). Barriers to research utilization for oncology staff nurses and nurse managers/clinical nurse specialists. *Oncol Nurs Forum, 25*(3), 497-506.
- Tisdale, N. E., Williams-Barnard, C. L., & Moore, P. A. (1997). Attitudes, Activities, and Involvement in Nursing Research Among Psychiatric Nurses in A Public-Sector Facility. *Issues Ment Health Nurs, 18*, 365-375.
- Tsai, S. L. (2000). Nurses' participation and utilization of research in the Republic of China. *Int J Nurs Stud, 37*(5), 435-44.

Research Related Activities and Its Related Factors in Clinical Nurses

Yang, Young Hee¹⁾ · Gu, Mee Ock²⁾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nkook University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describe research-related activities and attitudes toward research, barriers to and support needs for undertaking research in clinical nurses. **Method:** Data were collected by a questionnaire from 238 clinical nurses with over one year clinical experience working at 2 university hospitals. **Results:** Research related activities included courses or lecture about Nursing Research 85.7%, journal reading at least once every 2 to 3 months 30.0%, memberships in academic societies 29.4%, participation in academic conferences

45.0%, conducting research 45.4%, research utilization 24.6%. The score for attitudes toward research was 3.08(range 1-5). The score of barriers to undertaking research was 3.37(1-5) and the score for support needs for undertaking research 4.14(1-5). Attitudes toward research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barriers to undertaking research($r=-.36$, $p=.000$). Barriers to undertaking research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upport needs for conducting research($r=.23$, $p=.000$). Nurses with experience in conducting research had more negative attitudes toward research($t=-2.130$, $p=0.034$) and more barriers to undertaking research than those without experience in conducting research ($t=2.194$, $p=0.029$).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positive attitudes toward research in clinical nurses and nursing organizations need to provide strong supports for nurses conducting research.

Key words : Clinical nurse, Research activitie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ang, Young-Hee
Department of Nursing, Dankook University
San-29, Anseodong, Cheonan, Chungnam 330-714, Korea
Tel: +82-41-550-3881 Fax: +82-41-550-3905 E-mail: hanul96@dankook.ac.kr